

종교 초월한 '무등산 풍경소리' 100회 공연

4대종교 매일 모여 종교평화·사회현실 노래

종교간 화합을 위해 매일 공연을 펼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단체 모임 '무등산 풍경소리'가 100회를 맞았다.

무등산 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 중심사 주지)는 4월 14일 증심사 특설공연장에서 100회 공연을 맞아 광주 포크음악 레전드 5인(故 이장순, 정용주, 박문옥, 한보리, 김원중)을 초청해 '노래, 그리고 광주, 또 삶, 여전히 사람'이라는 주제로 특별무대를 선보였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2002년 증심사 주지였던 일철 스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종교인의 모임'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성직자와 환경단체로 구성됐다. 기존 음악회와 달리 노래 속에 생명과 환경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노래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음악회는 2002년 7월 2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1차례씩 증심사 특설무대와 성당, 교회, 원불교 교당 등에서 열렸다. 특히 촛불집회와 4대강반대를 위한 대중모임에는 시내의 집회현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평화와 사회현실을 표현하는 대표적 음악잔치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첫 공연은 지난 3월 작곡한 광주의 1세대 통기타 가수인故 이장순 선생의 무대를 후배가수인 아카펠라 그룹 '아우름과 모노'가 대신 나서 그의 노래 '빈수레'와 종장로의 밤 '을 들려주었다.

이어 정용주, 박문옥, 한보리, 김원중 씨의 무대와 광주지역 통기타 가수 50인이 함께한 '바위섬' 노래가 이어졌다. 특히 한보리 씨는 이날 100 음악회를 기념하는 곡인 '풍경소리'를 작곡해 첫 선을 보였다.

오랜 기간 풍경소리의 사회를 맡아온 최명진 목사는 "문화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편의 선택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을 순환시켜 생명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낸다. 이것이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이며 풍경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며 "그 힘으로 '풍경소리'가 200회를 넘기고 1000회를 넘길 때 광주가 꽃 피고, 사람이 함께 꽃피는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공연이외에도 사회



100회 기념 공연에서는 포크음악 레전드 5인을 비롯한 지역 가수들이 종교평화와 사회현실을 노래했다.

자, 영상촬영, 진행, 홍보, 섭외 등은 모두 실무진들의 무료봉사로 이뤄진다. 여기에 매달 200여 명의 관중들은 열혈 팬 층을 형성하여 음악회를 찾고, 이들에게 증심사는 저녁 무료공연으로 대접하고 있다. 또한 풍경소리의 운영은 매회 모아지는 후원금과 증심사,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으로 이뤄진다.

출연진도 기존 주류의 유명음악인 보다는 문화운동과 노래를 함께하는 이들이 힘을 보태고 있으며, 매회 이야기 손님이 출연하여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간화선에 대한 친절한 강의 열린다

조계종 부산聯, 월암 스님 초청 17일 첫 강의... 오는 6월 까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친절' 강의가 열린다.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4월 17일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초청 '친절한 간화선' 첫 강의를 개최했다.

6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2시 연합회 교육관 중강당에서 8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월암 스님의 저서 <친절한 간화선>을 저본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월암 스님은 첫 강의에서 "친절에는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이 있다"며 "수행자가 간절히 화두를 드는 게 안의 친절이며, 모든 생명을 부처로 섬겨 요되게 하는 것이 밖의 친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김제 금산사, 군 장병과 경찰 불자 격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군 불자들과 경찰불자들을 초청해 사회의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을 격려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15일 전북 임실 탄약창(창장 강재구 대령) 호국장영사에서 불자 장병 130여명을 초청해 미륵심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김태호 상병 등이 미륵심선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이 호국 장영사 불자 장병 대표에게 수계증을 수여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산대사 호국불교 정신 이어 '애민 애족'

애국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한 청허 서산 대사를 추모하는 서산대제가 열렸다.

해남 대흥사(주지 법각)는 4월 16일 대흥사 내 표충사에서 서산대사 탄신 제492주년 서산대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선시대에 봉행된 '예조 예제관 추모봉향'을 재현한 행렬식으로 시작됐으며 유교식 서산대사 제향이 봉행됐다.

오전 11시부터 봉행된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회장 보선 스님, 원로의원 안도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주지 종상 스님, 백양사 주지 시공 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동참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서산대사는 한국의 정신적 스승이며, 민족의 지도자이다. 큰 스님의 신앙운동은 단순한 추모를 뛰어넘어 행복과 평화를 구현하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서산 대사의 정신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가 한마음으로 신앙해야 하며, 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남북의 평화통일과 같이 불교계가 앞장서 정진해 나아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허담 서산대사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73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제492회 서산대제에는 국가제향 격상을 위한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몰렸다. 좌로부터 총무원장 자승 스님, 안도, 보선, 법등 스님 등이다.

전국에 격문을 돌려 스님들이 구국에 앞장서도록 했다. 국일도대선사도총섭(달도승 군총사령관)에 임명돼 문도 1500여 명을 통솔해 명나라 군사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

선조는 서산대사의 뜻을 기려 정2품 당상관으로 제수했으며 열반에 든 후 정1품 영의정에 추서됐다. 스님의 유품은 유언에 따라 대흥사에 보관됐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서산대제 외에도 서산대사 유물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또 나

라사랑 글씨 및 사생대회, 보살계 수계금강 대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개관한 서산대사 유물전시관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던 전시관으로 2008년 82억 원의 예산으로 4년여의 공정 끝에 이날 재개관했다. 유물전시관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10점과 지방 지정문화재 20점, 비지정문화재 500여 점의 성보와 유물을 보관, 전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신도회 42주년 맞아 조직 정비

광주전남신도회(회장 지용현)는 4월 15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창립 42년 기념법회 및 후불탱화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해양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신행단체와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전남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수석부회장 김재열, 국승희, 김정설 씨를 위촉했으며 사무국장 정대서, 의전국장 정찬선, 여성국장 이숙재 씨를 임명했다. 이날 광주지역 최초로 제정된 불자대상에는 김은희, 광종형, 김진호, 조영남, 서경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는 오전 9시 후불탱화 점안식에 이어, 불교의례, 김대원 수석부회장의 42년 연혁보고, 임명장 및 공로패 시상, 법문이 진행됐다.

무상 스님은 이날 "평생심미도"라는 말처럼, 평소 자신의 마음과 신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강조하며 "신도회가 호남불교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경북 불교스카우트가 창단

대구·경북 지역 불교스카우트가 창단됐다. 한국불교대학(대구 우학)은 4월 15일 옥봉보전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

님과 한국스카우트 대구연맹 관계자와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학 스님은 "어린이들이 불교정신과 애국심을 갖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스카우트단을 창단했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성주 지안사 12주년 기념식 개최

태고종 경북교구 성주 지안사(주지 지안)는 4월 15일 창건 12주년 기념 및 묘사제 낙성식 건립 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 경북교구위원장 덕운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신도회장

보현행의 발원문 낭독과 1·2부 의식에 이어 찬불가, 축가 등에 이어 흥겨운 한 마당 잔치로 마무리 됐다. 주지 지안 스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비행을 가꾼 인연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부여 대연각사 후 잔치 한마당

부여 대연각사(회주 불일)는 4월 28일 토요일 부여청소년수련원 대연각사 앞 특설무대에서 제3회 부여군관내 어르신 1000분 초청 효(孝) 잔치 한마당을 진행한다. 041)835-3933

거제 대원사 사리친견법회

거제 대원사(주지 지원)는 4월 29일 진신사리 친견 및 육화당(교육관)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일인 6월 16일에는 마정수기를 봉행한다. 055)632-1028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d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